

LG화학, 유동성 위기 대비하라!

LG카드 채권단 가동청산 위협 ... 은행권 대출중단 가능성 상당

LG카드 채권단은 12월28일 “LG그룹이 12월29일까지 자본확충에 응하지 않으면 LG카드는 자동 청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12월28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4개 은행장 회의를 열고 LG그룹에 대해 LG카드 자본 확충에 응하거나 캐시바이아웃(CBO)을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LG그룹이 27일 LG카드의 경영정상화 참여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LG그룹이 참여하지 않는 한 채권단 단독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채권단은 LG그룹이 보유한 채권을 채권단에 파는 CBO를 LG그룹이 수용하면 채권 금융기관만으로도 자본을 확충할 것이라면서 출자전환이나 CBO 중 하나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채권단은 LG그룹이 12월29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영정상화 추진이 곤란해 자동청산 절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나 LG그룹이 끝끝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출중단 등 새로운 압박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화학을 비롯한 LG그룹 계열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12/29>